

이웃들 위한 따뜻한 '온정의 손길'

전주시민의 장 수상자회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별어

전주시는 가장 인간적인 도시를 만드는데 앞장서 온 전주시민의 장 수상자들이 혹한의 추위 속에서 소외된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나섰다.

24일 시에 따르면 전주시민의 장 수상자회(회장 최찬욱, 93년 체육장) 회원 40여 명은 기온이 영하 10℃ 이하로 떨어진 최강 한파를 뚫고 노송동 일원에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배달된 2000여장의 사랑의 연탄은 최찬욱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추위로 고생하는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은 성금으로 마련한 것이다. 앞치마를 두른 전주시민의 장 수상자들은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과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등 에너지 소외계층 가구에 기증한 연탄을 직접 전달하며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온정의 손길도 함께 건넸다.

최찬욱 전주시민의 장 수상자회 회장은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주시민의 장 수상자들은 계속해서 이웃사랑 실천에 적극 동참하고 나눔 문화가 우리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주시민의 장은 효율장과 교육장, 문화장,



전주시는 가장 인간적인 도시를 만드는데 앞장서 온 전주시민의 장 수상자들이 혹한의 추위 속에서 소외된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나섰다.

노동·산업장, 공익장, 애환장, 체육장 등 7개 분야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남다른 노력과 열정을 쏟아 온 시민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전주시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런 상으로 손꼽힌다. 영광의 수상자들은 '전주시민의 장 수상자 예우

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주요 행사에 귀빈으로 초청되고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원·체육시설·시영주차장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하는 등 수상자로서 지속적인 예우를 받고 있다. /채규남 기자

김순정 시의원, 전문직여성 한국연맹 전주클럽 회장 취임

(사)전문직여성 한국연맹 전주클럽 제12대 회장에 전주시의회 김순정 의원이 취임했다.

신임 김 회장은 24일 전라북도 예술회관에서 열린 회장 취임식에서 전문직 여성의 권익보호와 양성평등을 위해 노력하고 차세대 여성 인재를 찾아 역량을 꽃피울 수 있게 돕는 모범적인 리더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이날 김 회장은 "전문직 여성이 중심이 되어 일자리, 육아, 복지 등 여성의 사회참여 보장과 양성평등의 가치관 확산 등을 위해 노력하고 회원들의 역량을 강화, 여성들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직여성 한국연맹 전주클럽은 지난 1995년에 창립하여 여고생·여대생을 대상으로 진로지도와 일반 기업체 여직원을 대상으로 직업관 교육프로그램, 소외계층 여학생 위생용품 지원을 위한 아름다운 기부행사 결매 프로그램, 도시농부 체험 등을 운영하는 등 여성지위 향상과 복지운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채규남 기자



덕천리 강성백·오길택씨, 진안장학재단에 장학금 전달

지난해에 이어 무술년 연초에도 진안사랑장학재단에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마령면 덕천리에서 토마토농장을 운영하는 강성백씨와 오길택씨가 각각 100만원의 장학금을 진안사랑장학재단에 전달했다.

강씨와 오씨는 3년 전 귀농하여 진안에 정착하면서 2016년 토마토 시설하우스 농장을 경영하게 되었고, 일교차가 큰 지역 여건과 첨단기술로 맛 좋고 품질이 우수한 명품 토마토를 생산하고 있다.

이들은 "앞으로 신규 귀농인들이 지역에 정착하는데 좋은 본보기가 되고 싶다"며 "귀농인들의 화합은 물론 진안군의 희망을 열어가는 장학사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중부교회, 저소득 모자세대에 720만원 후원금 전달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전주중부교회는 중앙동에 거주하는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모자세대에 720만원 상당의 후원금(차녀 기숙사비 100만원, 2년간 생계비 월 30만원)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기탁한 성금은 중부교회 비전센터에서 운영하는 커피 전문점 수익금에서 충당했다. 이번 행사는 중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상자를 발굴하고 후원자를 모색하여 이루어졌다. 협의체는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에서 소외되어 있는 세대를 발굴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어려움을 듣는 등 발로 뛰는 열정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해 왔다.

전주중부교회 박종숙 담임목사는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결연을 통해 복지를 실천하는 중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열정에 감사를 표했다. /채규남 기자

노송동 주민자치위원회, 대한민국 주민자치대회 우수상 수상

전주시 완산구 노송동 주민자치위원회는 2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5회 대한민국 주민자치대회 주민자치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날 행사는 (사)한국지치학회 가 주관, 행정안전부가 후원하는 행사로 전상직 한국지치학회장의 주민자치정책 발표와 김순은 서울대 교수의 한국주민자치대상 심사위원장의 취지설명 및 심사결과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조성호 주민자치위원장은 수상 소감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늘 고민하고 하나씩 실행에 옮긴 것이 큰 성과로 이어져 상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열정을 갖고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권보 노송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가 문화촌 꽃길 조성사업, 천사길 벽화 조성사업, 천사축제의 성공적 개최, 원도심 마을계획 수립 등 많은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왔다"며 "노송동이 지역주민과 함께 발전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송동은 최근에 '천사길 사람들'이 전국 마을 공동체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작년 말에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혁신마을등'에 노송동이 선정돼 특별교부세로 1억 2000만원을 수상했다. /채규남 기자



전주매일 www.jimaeil.com 2018년 1월 25일 (목요일)
등록번호 전북 7400016 (우)6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출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	중앙지사 010-9388-6874	남원지사 632-3886	고창지사 563-6888
010-9845-4113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7-8855	임실지사 010-9642-2725
삼천지사	순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8855	진안지사 433-3084
010-2333-4791	광복지사 253-6844	남원지사 632-0855	정읍지사 538-3787
서산지사 272-9417	군산지사 010-6789-0138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882-9157
호지사 010-6645-9355	익산지사 659-93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3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기사제보 288-9700

무주경찰서 강력팀, 여성성범죄 예방 홍보활동 펼쳐

무주경찰서(서장 윤종섭) 강력팀이 24일, 무주덕유산 리조트 스키장 주변에서 여행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지난해 비교한 기간에 범죄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다른 범죄보다 여행성(절도·폭행 등) 범죄가 다수 발생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무주리조트 내 스키장비 도난과 현금절도 등의 범죄유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무주지역을 찾은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범죄예방 사례를 홍보하고 가시적 형사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아울러, 스키시즌 기간 리조트 소속 패트롤 근무자들과 합동순찰을 통해 가시적 범죄예방활동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치안상황을 유지할 방침이다.

윤 서장은 "우리 경찰이 여행객과 지역주민이 안전하고 만족할 수 있는 치안활동을 전개해줄 것을 요구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경찰서 운봉파출소, 치안고객만족도향상 최선

남원경찰서(서장 임상준) 운봉파출소는 운봉읍사무소 회의실에서 개최된 이장단 회의에 참석하여 치안고객만족도 향상 및 교통사고, 전화사기 등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펼쳤다.

이날 조효익 파출소장은 운봉읍 33개 마을이장들을 대상으로 2018년 남원경찰서 핵심 추진과제인 치안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주민들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치안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리고, 눈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오토바이 안전모착용 및 서행운전,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각종 전화사기 피해예방 요령 등을 세심하게 설명 드리고, 범죄에 의심 가는 사람이나 차량 등을 목격했을 때에는 112로 신속하게 신고해주시길 것을 당부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당신의 사랑은 제대로 전달되고 있나요?

적십자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제대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합니다.

적십자회비 집중모금기간 2017.12.1 ~ 2018.1.31

아십니까? 적십자가 더 투명한 이유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재무투명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경영 투명성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주요 경영정보를 공시합니다.

국정감사와 회계법인 감사를 통해 매년 사업과 회계를 투명하게 검증 받습니다.

창립한 조직문화를 위해 클린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대한적십자사 후원금 사용내역

01 취약계층 맞춤형지원 51,370,679,216

02 국내 재난 구호활동 16,359,898,992

03 해외 구호활동 4,079,359,901

04 안전 지식보급 5,733,677,999

...

66

77

참여해주신 적십자회비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홍보대사 류수영